건설 투자 비중의 지역 격차 확대; 맞춤식 정책 필요하다

- 국내 최초의' 지역산업연관표 발표, 2003년 통계의 특징과 시사점 -

2007년 3월한국은행은우리나라최초로 지역 산업연관표를 발표했다. 지역 산업연관표는 구분된 지역별 산업 활동의 구조와 연관 관계를 밝혀주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역별 건설 투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산업연관표는 2003년 통계표이므로 이 시점의 지역별 건설 투자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모두6개권역으로구분되어있다. 건설 투자는 수요자 기준에서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 그리고공종별로는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시설건설 등4개부문으로분류된다.

지역별 부가가치 대비 건설 투자 비중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순간접세(간접세 - 보조금)를포함하는 것으로개념적으로지역내총생산(GRDP)을 의미한다. 전체 경제의 부가가치와 건설 투자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지만, 부가가치 대비 건설 투자는 통상적으로 건설 투자의수준을가늠하는지표로사용된다.

2003년 기준으로 지역별 부가가치 대비 건설투자비중은강원권이29.5%로가장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권이 19.8%, 충청권18.5%, 경북권17.3%, 경남권 15.8% 순으로 나타나고, 수도권이15.5%로

지역별 건설 투자의 부가가치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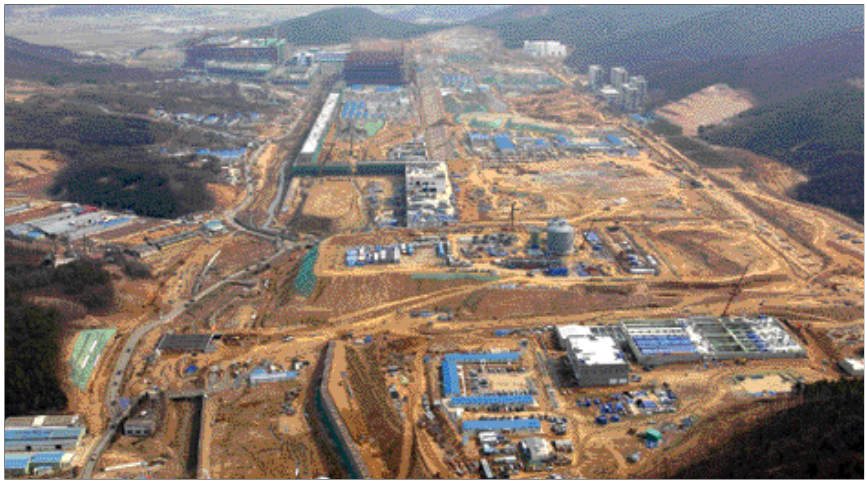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건설투자	수요자 기준		공종별 기준			
		민간부문	정부부문	주택	비주택	교통시설	기타시설
수도권	15.5	12.6	2.9	6.1	5.8	1.4	2.2
강원권	29.5	12.0	17.5	2.4	5.6	12.6	8.9
충청권	18.5	12.3	6.2	3.7	6.6	4.0	4.2
전라권	19.8	11.8	8.0	2.7	5.1	5.5	6.5
경북권	17.3	11.3	6.0	3.3	5.0	5.1	3.9
경남권	15.8	10.9	4.9	4.5	4.9	3.1	3.3

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강원권이30% 대에육박하는높은비중을차지한반면, 나머지5개지역은 15%에서20% 미만의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수요자 기준으로 보면, 강원권만 정부 부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나머지 5개지역은모두민간부문의비중이더높게 나타나고있다. 민간부문건설투자의비중은6개지역모두에서대체로10% 이상13% 미만의고른분포를보이고있다. 이에반하여정부부문건설투자비중은편차가매우 심한특징을보인다. 강원권은정부부문비중이 17.5%로 특이하게 높은 반면, 수도권은 2.9%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대체로 부가가치대비건설투자비중이낮은지역일수록 민간 부문의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정부부문의비중은현저히낮은특징을보인다. 반면, 건설투자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정부부문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 에 의하면, 건설 투자의부가가치대비비중, 최종수요 대비 비중, 고정자본형성대비비중은 모두 강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설 투자의 최종 수요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건설투자	공종별 기준			
		주택	비주택	교통시설	기타시설
수도권	9.2	3.6	3.4	0.8	1.4
강원권	16.5	1.4	3.2	7.0	4.9
충청권	8.9	1.8	3.2	1.9	2.0
전라권	9.9	1.3	2.6	2.8	3.2
경북권	8.1	1.5	2.3	2.4	1.9
경남권	7.5	2.2	2.4	1.4	1.5

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부문별 비중의 특징은 공종별 비교를통해보다명확히알수있다. 주택부문의비중은수도권이 6.1%로가장높은반면, 강원권은 2.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주택 부문은 모든 지역에서 5~6%대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통 시설과 기타 시설 등 토목 부문은 주택 건축과 정반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교통 및 기타 시설 둘 다 강원권이 각각 12.6%와 8.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반면, 수도권은각각1.4%와 2.2%로 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수도권다음으로 경남권도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종 수요 대비 건설 투자 비중

지역 경제에서 최종 수요는 당해 연도에 그지역의경제활동및성장수준을결정하는외생변수이다. 지역경제의최종수요는 지역내수요로서소비와투자가있고, 지역외수요로서수출과이출이있다. 이출은지역단위에서발생하는최종수요로한국가내 여타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 건설투자는기계류등설비투자와 함께지역내투자수요를구성하는요소이다. 최종 수요에 대한 건설 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건설산업의 단기적인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종 수요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시기에 건설업을 통한지역생산과고용창출효과가크다는 것을의미한다.

2003년도최종수요대비건설투자비중은강원권이 16.5%로가장높은반면, 경남권은 7.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건설투자비중은부가가치대비로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최종 수요 대비로는 강원권과전라권 다음으로 높은 9.2%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은 모두 10% 미만의 한자릿수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공종별로보면, 주택부문비중은수도권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주택부문은수도권이3.4%로가장높지만나머지지역도2%대이상의비교적편차가적은 비중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교통시설과기타시설등토목부문은수도권이 각각 0.8%와 1.4%로 가장 낮은 반면, 강원권이 각각 7.0%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있다.

건설 투자의 단기적인 지역경제 기여도는 강원권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강원권은전체지역경제의수요중15% 이상을 건설부문에의존하고있는데특히, 토목부문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 반면, 수도권의 건설투자비중은강원권과달리주택및비주택 부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타 지역에 비해 경북권과 경남권은 토목 투자 수요가 낮은데다주택및비주택투자도활성화되지못하여전반적으로지역경제에대한건설투자의기여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고정자본 형성 대비 건설 투자 비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 투자는 고정자본형성을통하여지역경제의성장과복지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건설은기계류등설비부문과함께지역내고정자본을 형성하는중요한요소이다.

지역별로 고정자본 형성 대비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강원권이 75.4%로가장높고, 전라권이 63.5%로그다음을 차지하고있다. 반면, 수도권은53.3%로 가장낮다.

공종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각각 20%대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교통과토목시설은각각 4.8%와 7.9%로 크게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강원권은 주택의 비중이 6.2%로 가장 낮은 반면, 교통 시설과 기타 시설은 각각 32.1%와 22.7%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있다.

한편, 주택과비주택비중모두가교통시

지역별 건설 투자의 고정자본 형성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건설투자	공종별기준			
		주택	비주택	교통시설	기타시설
수도권	53.3	20.8	19.8	4.8	7.9
강원권	75.4	6.2	14.4	32.1	22.7
충청권	58.3	11.5	20.8	12.7	13.3
전라권	63.5	8.6	16.4	17.5	21.0
경북권	57.3	10.8	16.4	17.0	13.1
경남권	56.0	16.1	17.5	11.2	11.2

설과 기타 시설 비중보다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경남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여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고른비중분포를보이고있다.

성장 지역은주택, 낙후지역엔토목 투자

지역간 비교를 통한 지역별 건설투자 비중의 특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지역별로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과 더불어 건설투자 비중 역시 상이한구조로전개되고있다. 즉, 건설투자의 지역 내 부가가치 및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비중은 지역 경제의 활력과 성장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역일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경남권이 전자의 특징을 보이는반면후자의대표적인지역으로는강원권을꼽을수있고, 전라권역시이에가까운 특징을보이고있다.

둘째, 지역경제에대한건설투자의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택 투자의 비중이 높은반면, 공공중심의토목투자비중이크게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설 투자 비중이높은지역일수록상대적으로토목부문의 비중이 높고 주택 건축의 비중이 낮은 특징을보이고있다. 이를첫번째특징과연결시켜 보면, 성장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과경남권은건설투자비중이낮고, 주로 민간 부문의 주택 수요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상대적낙후지역에속하는강원권은 건설투자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이나, 주로공공토목수요에크게의존하는성향을보인다.

셋째, 이러한 지역별 건설투자 비중의 특징은정책적인측면에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일반적으로성장지역일수록여타산업부문의비중이커지면서건설부문의비중은 떨어지나, 상대적으로주택 등 민간건축 수요의중요성이커지는특징을보인다. 그러나, 아직성장 기반을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건설투자에의존하는비중이높으며그것도 정부또는공공부문으로부터유발되는토목 수요에크게의존하는경향을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 경제의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 경로가 다르게 전개되는 만큼, 건설 투자의 유도 방향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접근할필요가있다. 지역경제의성장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건설 투자 비중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나, 이것이 반드시 건설투자의중요성이약화된다는것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지역에서도 건설 투자는 단기적으로지역경제의활력유지에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보다주택 부문의 수요가결정적인역할을하게된다. 2003년의경우수도권은전반적으로주택수요의증대로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 높은 기여를 한 반면, 경남권과 경북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성장지역일수록건설정책은민간주택부문의활력및안정성유지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에 비하여 성장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여전히건설부문이지역경제에서담당하는 역할이크므로건설투자정책은가장핵심적인 지역경제 정책이 된다. 그리고 건설투자 정책은지역내민간부문의건설수요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주로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 그것도자체 투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투자 확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이러한정책방향을장기적으로지속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이다. 낙후지역일수록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건설투자의시혜적인조치에의존하는 타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있을것이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ysyoon@cerik.re.kr

인터넷 여행 *http://www.cerikedu.com*

CERIK 사이버교육센터

이번 호에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의 집체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에 건설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험과 지식을 집적하여 온라인상으로 건설 생산 과정에 필요한 기술 지식은 물론 현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 지식과 사업 관리 지식을 전달하고자 오픈한 CERIK 사이버교육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CERIK 사이버교육센터의 운영 과정은 고용보험 환급 과정 및 건설 기술자 전문 교육을 포함하여 총 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과목 개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 사이트의 ' 교육자료실 ' 란에는 교육에 필요한 강의 자료 및 건설 동향 · 정책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 고객지원 ' 란에는 교육생들 및 교육을 원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FAQ, Q&A란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 개설된 과정이 아닌 맞춤형 교육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 나의강의실 ' 란에는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과정 및 이제까지 수강했던 모든 강의에 대한 성적, 진도, 수료증 발급 등의 수강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CERIK 사이버교육센터는 강의 내용의 고급화 및 수강생의 효과적이고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사이트로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건설업체 및 건설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건설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 속에 CERIK 사이버교육센터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오광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